

## 폭력에 무참히 스러진 청춘에의 위로

‘꽃의 나라’ 한창훈 지음



6년 전 고향 여수 거문도로 돌아와 집필에만 매달리고 있는 한창훈(48)씨가 신작 장편 ‘꽃의 나라’를 출간했다. 신작 ‘섬, 나는 세상 끝을 산다’ 이후 8년 만에 낸 장편소설이다. 그는 섬에서 나고 자란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계층이나 소시민들의 쫓겨난 삶을 남도의 구수한 사투리로 다뤄 ‘바다와 섬의 작가’로 불려왔다.

그의 이번 소설은 전작과는 달리 ‘꽃’에 닿아있다. 잠시 바다와 섬, 비탄한 생선 좌판을 뒤로하고 가족과 사회, 국가폭력에 휘둘리는 인간 실존을 그린다.

고등학교 시절 직접 겪은 국가폭력(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고발하고, 폭력 앞에 나약할 수밖에 없는 청춘의 모습을 고등학생 소년·소녀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이러 도시 공터에서 아이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며 사회폭력과 대면한다.

사회폭력은 도시 공터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전방위로 존재한다.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폭력적인 처벌을 가하고, 아이들은 패를 갈라 싸우면서 서로에게 폭력을 주고받는다. ‘나’ 또한 사회폭력에 혼란스러워하지만 곧 익숙해지고 폭력으로 맞대응한다. 교내 폭력서클에 가입하고 경쟁 서클과 집단 패싸움을 벌여 경찰에 잡혀가기도 한다.

소설은 빠르게 몸을 바퀴 학교 밖, 사회로 시선을 돌린다.

‘나’는 학교 바깥이 날마다 소란스럽다는 것을 느낀다. 대학생들이 데모를 시작하고 민주주의의 열기가 도시와 학교 곳곳에 몰려온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도시에 탱크가 몰려오고 군인들이 시민들과 대학생들을 진압하기 시작한다. 군인들은 곤봉과 총, 칼을 앞세워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시민들은 속절없이 폭력 쓰러진다.

소설은 ‘폭력’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한세 특유의 짧고 간결한 문장에 사회현상을



〈문학동네 제공〉

반영한 유머까지 더해져 술술 읽힌다.

곳곳에 순간적인 반전과 재치가 가득하다. 특히 청춘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여러 에피소드는 아련한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작가는 이번 소설을 통해 국가폭력 앞에서는 아무런 저항도, 법도, 인간 실존자체도 소용없다는 비극적 세계관을 드러낸다.

사회 폭력이라는 개인적 서사를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서사로 전환한 작가는 국가폭력이란 남민을 즐길 권리가 있는 청춘들마저도 무릎 꿇기는 무자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쟁이라고 느낄 정도의 국가폭력에 무참히 짓밟히고 총에 맞아

죽어간 친구 ‘영기’를 비롯한 수많은 이들이 그 증거다. 작가는 그때, 그 죽음을 다시 불러들여 현재를 역설한다. 그 주검들이 머무르는 ‘꽃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

5·18이 아니라 폭력이 주제가기 때문에 도시 이름에 대해 일질 언급하지 않았고 전라도 사투리로 쓰지 않았다는 한씨는 “가장폭력이나 사회폭력은 같은 세대 사람들이 낭만적으로 견뎌낼 수도 있지만 국가폭력은 개인들에게 낭만을 만들어낼 여유조차 주지 않고 개인을 무참히 꺾고 무너뜨린다는 걸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문학동네·1만1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민족의 반역자 배정자, 그녀는 왜

‘흑치마 사다코’

은미희 지음



조선 중기의 여류시인 이옥봉의 사랑과 예술혼을 담은 소설 ‘나비야 나비야’를 썼던 은미희(51)씨가 이번에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낙인 찍힌 한 여성의 삶에 초점을 맞춘 장편 ‘흑치마 사다코’를 출간했다.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조국과 민족에 반역을 피하며 무수한 비난의 화살을 받으면서도 어떠한 누워 침도 없이 오히려 더 악독하게 조국의 반대편에서 서서 자신의 인생을 내던진 배정자(1870~1951년·일본이름 사다코)의 이야기다.

인물과 시대의 절절한 고충에 허구라는 소설적 장치를 가미한 소설은 특히 그녀가 왜 친일하게 되었고, 민족의 반역자로 살았는지 인물의 인생 여정과 심리묘사

에 신경 썼다.

그러면서도 작가는 그녀가 나라와 동족을 배신하면서 얻은 이득으로 배부르게 살았던 사실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인간적 고뇌 운운하며 그럴싸하게 그를 두둔하고 옹호하거나, 동정할 여지를 허락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실제로 수많은 약행으로 1949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반민특위에 의해 체포되었지만 처벌 받지 않은 채 풀려난다.

작가는 “친일과 청산만 제대로 되었다라든 나는 배정자에 관해 쓰지 않았을 것이다”며 “지금, 그녀를 역사 속에서 다시 불러내 심판대에 세운다”고 밝혔다.

〈네오픽션·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왜 유권자는 키 큰 정치인에게 열광할까?

‘빅 맨’

마크 판 휘트·안자나 아후자 지음



정치학자들은 키가 큰 후보가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사실을 늘 언급해 왔다. 또 짧은 리더보다는 성숙한 리더를 선호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치인의 키와 건장한 체격 등이 정치 수행 능력과 곧바로 연결되지 않음에도 유권자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화심리학자인 마크 판 휘트와 미국 과학 칼럼니스트 안자나 아후자는 ‘빅 맨-원시의 뇌가 지배하는 리더십의 탄생과 진화’에서 이것이 현대인에게 남은 ‘원시적 뇌’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진화가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여전히 현대인들에게 원시의 뇌가 남아있고, 이 뇌는 약탈자로부터 부적을 지켜줄 수 있는 큰 키와 다부진 턱,

관대하고 웅망한 성격 등을 지닌 원시시대 리더상을 여전히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책은 조직심리학에서 진화생물학까지, 동물의 왕국에서 현대 정치와 기업문화까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인간의 조직 내 행동 ‘리더십’의 역학적 관계를 분석했다.

그중에서도 저자들이 특히 주목한 것은 ‘리더 선택의 부조화’.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는 속도에 두뇌 진화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에 이르러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런 비합리적인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진화 리더십 이론 등을 바탕으로 21세기 리더십을 위한 몇 가지 지침도 전하고 있다.

〈웅진지식하우스·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선조들의 삶... 그 속에 담긴 지혜

‘선조들의 사생활’

이선학 지음



동양고전에 심취해 선조의 생활방식을 연구해온 이선학씨가 선조들의 내밀한 삶과 그 속에서 담긴 해학과 지혜를 엮은 ‘선조들의 사생활’을 펴냈다.

‘왕과 선비들이 펼치는 재치와 사랑의 비밀코드’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책은 우리와는 다를 것 같고 생 각하는 영웅들 역시 사소한 일에 아파하고, 고민하며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다는 점을 설화와 함께 들려준다.

폐위 당한 양녕대군의 낙천적 처세

술, 가짜 여사행세를 하다가 진짜 여사가 된 정완, 선덕여왕이 예언한 세 가지 비밀, 앓아서도 천 리를 보는 광개토태왕의 해안 등을 지혜와 재치, 감진 출생인 이씨는 조선시대와 동대 학원을 졸업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문학을 공부했다. 낸 책으로는 ‘고사성어로 배우는 인간경영’, ‘인물로 보는 삼국지’, ‘조선시대 선비들의 해학’ 등이 있다. 〈휘닉스·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성서의 경제생활에 대한 종교적 이해

‘성서경제학’

손형섭·김정자 지음



성서에서 경제 분야만을 분류,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연구서 ‘성서경제학-하나님의 경제질서’가 출간됐다.

손형섭·김정자씨 부부가 집필한 책은 성서의 경제생활에 대한 종교적 이해와 응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저자들은 아직 개념정의가 덜된 성경경제학의 개념과 의미, 기원과 윤리, 노동과 임금, 국제화와 복음전도 등을 18장에 걸쳐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

저자들은 머리말에서 “일상생활에

서 성서적 경제생활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화산 출생인 손씨는 전남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목포대 지역개발학과 교수와 사회대학장, 경영행정대학원장을 지냈다. 공저자인 김씨는 목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광주 양암중 교장 등을 역임했다.

〈금성정보출판사·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우리 삶에 대한 통찰

‘울지 말고 꽃을 보라’

정호승 지음



40여 년 동안 수많은 시와 산문을 통해 삶의 희망을 전해 온 정호승(61) 시인이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짧은 이야기를 엮어 산문집 ‘울지 말고 꽃을 보라’를 출간했다.

‘정호승의 인생 동화’라는 부제가 붙은 책은 ‘당신의 마음에 창을 달아드립니다’ 등 그동안 발표한 산문집 4권에서 희망을 잃고 지쳐만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102편을 골라 실었다.

1장 ‘기다림 없는 사랑은 없다’ 등 총 5장으로 구성했으며 각 편은 삶을 성찰하게 하는 동화와 우화로 이뤄졌다.

혹독한 겨울의 눈보라를 견디 다음에야 열매를 맺는

가을보리를 통해 고통의 의미를 일깨우는가 하면, 서로 다른 견해로 싸움을 멈추지 못하는 해와 달의 모습을 빗대며 인정받지 않을 때 아집에 빠지고 마는 여러 설움을 되비친다.

또 바위라고 우기는 모래를 비웃다 모래가 된 뒤에야 누워치는 바위의 이야기에서는 누구의 인생에 주어진 고통과 인내도 그 크기는 다르지 않다는 진실을 가르치고, 허술하지만 심한 바람에도 결코 쓰러지는 법이 없는 제주 돌담의 허술함을 통해 삶의 지혜를 일깨우기도 한다.

정 시인의 아름다운 글에 바탕을 둔 화백의 관화와 채색화가 어우러져 감동과 울림의 깊이를 더한다.

〈해냄·1만3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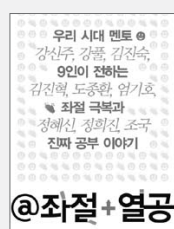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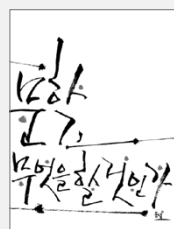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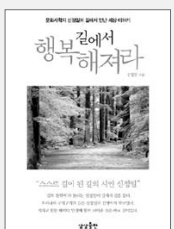
## 신간

▲길에서 행복해져라=문화사화자이자 도보여행가인 신정일 우리땅 걷기모임 대표가 40여 년 동안 길을 걸으며 느낀 단상들과 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었다. 길 위에서 온갖 위험과 고난과 싸우며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된 이야기와 ‘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색을 담았다. 어린 시절부터 저자를 따라 전국 문화유산은 답사해 왔던 저자의 아들 ‘하늬’의 그림도 실렸다. 〈상상출판·1만3000원〉

▲봄날은 간다=소설가이자 번역가인 고(故) 이윤기(1947~2010년) 선생의 1주기를 맞아 펴낸 추모집. ‘신화 속으로 떠난 이윤기를 그리며’라는 부제가 붙었으며 표제작인 고인의 단편을 포함해 후배 작가들의 신작 단편 소설 5편과 고인과 인연이 있는 디자이너 정병규, 소설가 김벌아, 가수 조영남, 딸 이다희 등의 산문이 실렸다. 〈섬앤섬·1만2000원〉

▲조선전쟁 생존기=행주산성 전투 등 조선 500년 동안 일어났던 10번의 주요 전투를 ‘생존기’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역사소설 작가, 사학자, 일본인 등 다양한 필자들이 전무별로 역사적 배경과 성격 등을 소개하고, 마치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듯 시각각 변화하는 전장의 상황을 해설과 함께 묘사했다. 당시 병사들의 무기와 갑옷 등을 그림으로 복원하고 전투 지도와 삽화 등으로 이해를 돕고 있다. 〈북하우스·1만6000원〉

▲문학, 무엇을 할 것인가=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가 문



학과 문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문학평론가 도정일, 염무웅, 시인 김형수, 김해자,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10명의 필자는 문학의 이상화, 문학 중심주의를 비판하며 문학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을 제안한다. 문학은 영이 지상주의, 소외된 사람들의 삶 등 시대의 아픈 곳을 담고내고 이런 위기를 이겨낼 수단이 왜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녘·1만3000원〉

▲@좌절+열공=2010년 겨울과 2011년 여름에 걸쳐 정동문예아카데미에서 진행한 팔로우(Follow) 특강 강의 내용을 모은 강연집이다. 강신주, 강풀, 도종환, 정희진, 조국 등 아홉 명의 멘토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좌절 극복과 진짜 공부 이야기를 솔직하고 담백하게, 때로는 흥미진진하고 유쾌하게 털어냈다. 토론의 장이자 좌절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안내서로 손색없다. 〈서해문집·1만27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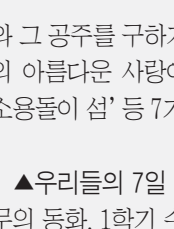
▲손정의 상식을 파괴하는 비즈니스 테크닉=손정의의 수백비서로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마키 다케노부(주)저팬플레이그스프린트 CEO가 야후재팬 설립부터 소프트뱅크의 고속 질주까지 항상 선두에서 서서 시대를 리드한 손정의의 업무기법을 소개했다. 2000년 소프트뱅크 주가가 100분의 1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2의 창업기’를 만들어 내는 등 최악의 상황에서 역전을 거듭해 지금에 이른 손정의의 행동력의 핵심을 다양한 일화를 곁들여 보여준다. 〈울버리지·1만1500원〉



▲신나는 마술사=‘방정환문학상’ 등을 받은 정두리 시인의 새 동시집. ‘학교 가기 싫다’ 등 눈높이를 낮춘 작가의 세심한 눈으로 해맑은 아이들의 일상을 아가자기라기 풀 어냈다. 표제시 ‘신나는 마술사’를 비롯해 53편의 시를 ‘고양이 잠’ ‘좋은 사진’ ‘둘레바람에게’ 등 5부로 나누어냈다. 〈문학고지서사·9000원〉

▲크르르르 잠자리 대소동=영국 작가 데이비드 린웨이와 찰스 퓨지가 쓰고 그린 그림책. 잠 못 이루게 만든 주인공을 찾아 떠나는 동물들의 모험을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독특한 운율의 의성어와 함께, 분홍색을 주제로 동물들의 특징을 화려한 색감으로 표현해 읽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책이다. 〈어린이작가정신·1만원〉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시인이자 소설가인 일본 작가 하치카 미미의 동화책. 말도 행동도 느려 터진 느릿느릿 양과 말도 행동도 빨리 해치우는 빨랑빨랑 양,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양의 유쾌한 친구이야기가 펼쳐진다. ‘진



구는 나를 보는 거울’이라는 주제를 시인의 감성으로 잔잔하게 그렸다. 〈파란자전거·8900원〉

▲세븐 드래곤즈=만화 ‘모래요정 바람돌이’의 원작인 ‘다섯 남매와 모래요정’의 작가 에디스 네스빗의 단편 모음집. 진부하기 쉬운 ‘용’이라는 소재를 그녀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멋지게 그려냈다. 아버지의 무시무시한 저주로 소용돌이 섬에 갇힌 공주와 그 공주를 구하기 위해 싸우는 용사 ‘나이젤’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다룬 ‘아홉 개의 소용돌이 섬’ 등 7가지 이야기를 담았다. 〈아름추니어·9800원〉

▲우리들의 7일 전쟁=일본 작가 소다 오사무의 동화. 1학기 수업 마지막 날, 일본 도쿄의 한 중학교 1학년 2반 남학생 22명이 모두 사라졌다. 아이들은 빈 공장에 자신들만의 ‘해방군’을 만들어 어른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데..... 사회 부조리에 맞서는 학생들의 모습을 유쾌하게 그렸다. 〈이창북·1만원〉

## 어린이 책꽂이